

인구 계속 줄고 도시경쟁력 추락 '위기의 목포'

목포시의 끝없는 추락, 브레이크가 없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지표와 통계를 종합해보면 목포시 민선 6기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에도 목포 지역사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태양산단 분양, 대학부지 용도 변경, 해상 케이블카를 둘러싼 발목잡기식 비판과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법을 모색하는 고민은 실종되고 갈수록 분열 국면으로만 치달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현재 목포시가 직면한 문제점이 뭔가를 짚어봤다.



각종 평가와 통계로 본 목포의 현실

- 지방재정 운용·지역안전도 최하위
- 인구 감소...20년만에 24만명 붕괴
- 재산세 부과 114억원...도내 네번째
- 범죄도시 오명...1년간 1만3358건

경쟁력 나주에도 밀릴 우려 잇단 사고 위기대응력 부재 민선 6기 앞날 어두운 그림자 재도약 해법찾기 적극 나서야



신안비치아파트 주차장 붕괴



환경에너지센터 폭발사고



만호동 침수 부른 내항배수펌프장 단전

안전불감증 사례

◇ 텅 빈 공간, 도시경쟁력 추락=가장 큰 문제는 목포시 재정.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전국 꼴찌 그룹을 맴돌고 있어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연말 총점 1300점을 만점으로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능력) 25개 지표에 걸쳐 '지방재정 운영 전반'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목포시는 종합 등급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건전성 분야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 효율성 분야에서도 역시 '마' 등급을 받는 굴욕을 당했다. 단 재정운용 능력 분야에서만 '다' 등급을 맞아 체면을 살렸다. 곳간만 텅 빈 것이 아니어서 사태가 더 심각하다. 텅달아 도시 경쟁력까지 추락하고

있다. 목포시는 전남도 행정 직제상 1위 도시가 분명하지만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는 도내 4위로 밀렸다. 다행히 나주시에 앞섰지만 혁신도시가 본 궤도에 오르며 나주에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산세 부과 규모를 보면 목포시는 114억원으로 여수시 220억원, 순천시 182억원, 광양시 143억원에 이어 4번째다. 순수 재산세만 비교하면 여수시 124억원, 순천시 114억원, 광양시 81억원, 나주시 71억원, 목포시 62억원으로 5위다. 재산세는 그 지역 부의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 지역 안전도 최하위 불명예=도시경쟁력의 근간인 인구도 줄고 있다. 목포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9109명으로 24만명 선이 무너졌다.

24만명 붕괴는 23만9571명을 기록한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목포는 1990년 25만3423명을 최고로 줄곧 24만대를 유지해 왔다. 이유는 무안군인 남악지구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악 신도시 인구의 10명 중 6명이 목포시 인구가라는 통계가 이를 시사한다. 목포시가 발표한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범죄가 1년 새 무려 1만3358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36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한 충격적 수치다. 이는 관내 23개 동에서 매일 1~2건의 범죄가 일어난다는 반증이고, 범죄도시의 오명 탈피는 요원하다는 얘기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력범 199건, 절도범 1836건, 폭력범 2590건, 지능범 2363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범죄도 31건이나 됐다. 국민 안전처가 실시한 2014년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전체 10등급 중 최하위인 10등급으로 '마' 등급에 속했다. 지난해 신안비치 아파트 주차장 붕괴, 환경에너지 센터 폭발사고, 만호동 일대 상가 침수 등이 잇따라 발생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특히 만호동 침수 사고는 배수펌프장 단전으로 인한 목포시의 위기대응력 부재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현 시장의 능동 대응도 마 위에 올라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오피니언 계층에서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협력해 "목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살 수 있는 터전 마련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임영춘·고규석기자 lyc@

“싱크홀 공포 더 이상 없게 한다” 노후 하수관로 49km 정밀 조사

“목포시에 ‘싱크 홀’(Sinkhole=지하 동공에 의한 도로함몰) 공포는 더 이상 없다.” ‘싱크 홀’ 주원인이 노후 불량 하수관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싱크 홀’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가 나선다. 시는 “관내 하수관로 25km와 차집관로 24km 등 20년이 경과된 1000mm 이상 관로 49km에 대해 정밀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후 관로 정밀 조사에는 CCTV 조사와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의 기법이 도입된다. 노후 관로 조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총 2억8400만원이 투입된다. 이상호 하수과장은 “지난 4월 환경부로부터 1억9900만원을 교부받아 정밀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조사결과 개·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관로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해 지반 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관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하수과는 공사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싱크 홀’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시 발주 사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남악 복합쇼핑몰 반대 공식 표명 목포시의회, 입점 추진 중단 촉구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유통 공룡 잇따라 상륙, 아우성치는 지역상권'(광주일보 5월 4일 11면)과 관련, 무안 GS 리테일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8일 의회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안군은 지역 중소상인 몰락시킬 대형 쇼핑몰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경기도 파주시 사례를 들고 2011년 대형 아울렛이 들어온 이후 인근 상인 70%가 매출액 50%까지 감소했고, 여주시 경우도 기존 상권 대비 매출의 약 40%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대형 쇼핑몰 입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남도지사와 무안군수에게 보내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쇼핑몰 입점을 주장한데 대한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성오 의장은 "무안 지역은 물론 목포·영암 지역에 이르러까지 주변 50km 범위의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의류뿐 아니라 신발, 음식점, 서비스업으로도 피해가 확대될 것이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을 포기하는 상가가 확대될 시가지는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해 의회차원에서 입점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연 2.10%**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동강대학점 | 두암신협 본점 (말바우시거리) | 263-0136

두암타운시거리점 | 두암신협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 264-1232

부영아파트점 | 두암신협 첨단지점 (후반아파트 청문 맞은편) | 572-9511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